

## 제3회 6개 팀 참가 토너먼트로 진행

### 포천시야구협회장배 야구대회 개최식



포천시야구협회(회장 장승호)는 5월6일 영북중학교 운동장에서 제3회 포천시야구협회장배 야구대회 개최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식은 황영철 포천시 부시장과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과 나이스야구단 등 6개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은 "오늘부터 3주 동안 장거리이동 경기로 진행되는 동안에 부상에 유의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포천시 부시장은 "사육신

유승부, 한말 독립운동가 최익현 선생 등 훌륭한 분들의 기를 받아서인지 포천시는 체육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야구대회 또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은 "포천시 야구인들이 훌륭한 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폐석산 이용, 시·국유지 대상으로 장소를 파악중"이라며 "관계공무원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 야구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필리핀공동체 2007 여름농구리그 개막식

#### 전방진 세이프건설 회장 300만원 지원해 감사패 받아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인 필리핀 공동체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여름 농구리그 개막식이 5월6일 오후1시 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와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13개 농구팀이 이번 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번 리그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동체 대표의 기사가 포천신문에 게재되자 300만원을 지원해 준 전방진 회장에게 감사패가 주어졌다.  
 전 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오늘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여러분이 한국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며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주교 사회복지회 차홍길 신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에 더욱 열심하며 신앙과 사랑을 발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참석한 전방진 세이프건설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필리핀 공동체 대표 라우로(왼쪽에서 두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여름농구리그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되며 참가하는 팀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신지역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양국의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도 눈에 띄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베트남 연수 성료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베트남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운영위원회 배성호 고문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시찰하고 현지 투자여건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을 통해 운영위원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앞으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번 해외연수를 마련한 윤이용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갖는 해외연수를 통해 위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년 정기적인 해외연수를 통해 친목도모는 물론 운영위원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열 발행인은 "1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3박5일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연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포천신문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운영위원회 배성호 고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주형비나 CO·LTD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k61@paran.com



포천신문사 운영위원회 해외 연수 주형비나 CO·LTD 베트남 공장 시찰

### 포천신문골프회 4월 정기라운딩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는 4월 26일 포천아도니스CC에서 정기라운딩을 갖고 포천시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는 지역언론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라운딩은 2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6개팀으로 나눠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후 가진 제13차 월례회의에서 박노현 회장은 "바쁘신 일 정 가운데 오늘 경기에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천신문이 발전하는 것은 곧 포천시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여러분들의 애정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포천신문이 날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독자확보에 보



포천신문 골프회 최호열 상임고문이 4월월수자 박영선(오른쪽) 회원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

여주신 여러 회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골프회를 통해 다져진 에너지가 포천시의 발전은 물론 포천신문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박노현 ▶우승 박영선 ▶준우승 이찬우 ▶장타상 강경만 ▶근접상 박운중 ▶행운상 안병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⑬ 꼬마물떼새 [Little ringed plover]

## 신록이 가득한 5월 야생동물 번식의 계절

신록이 가득한 5월은 야생동물에게는 번식의 계절입니다. 포천천에 나가보면 꼬마물떼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짝짓기를 하기 위한 그들의 성스러운 의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짝을 찾고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가나 모래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물떼새로 무리 중에서 작다고 해서 꼬마물떼새라고 이름지어졌습니다.  
 특히 눈 주위의 노란 테가 진하게 있어 흰목물떼새와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월경에 와서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만든 다음 3~5개의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데, 자갈이나 모래와 색깔이 비슷하여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되기도 합니다.



2007. 4. 26 포천천에서 촬영

그렇다보니 하천 둥지를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에 무참히 밟히기도 하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그들의 둥지가 유실되어 번식에 실패하고 눈물겨운 2차 포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늦둥이가 태어나게 되고 얼마아빠 꼬마물떼새는 더욱 바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렵게 부화에 성공하여도 어린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그를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둥지에서 번식하는 다른 새들은 보통 새끼 앞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약 10일 이상 둥지에서 키우지만 물떼새류의 새끼는 깨어나자마자 털이 마르면 곧바로 걸어서 둥지를 벗어나 풀 뜯이나 수풀 속으로 숨어들어 천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꼬마물떼새의 전라야 항상 먹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들은 잘 날지 못하기 때문에 들고양이나, 까치 등의 포식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에는 마치 어머니 자신이 다리를 다친 척하며 날개를 펼쳐 절뚝거리면서 천적의 시선을 유도하며 위장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를 쫓던 천적은 어머니께 시선을 옮기며 쫓아 오게 하여 새끼와 멀어지게 한 다음 천적이 다가오면 '메롱'하며 조롱

하듯 날아 가버리고 그 사이에 새끼들은 무사히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날쌔고 민첩해도 미리 알아채고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는 없지요. 이런 행동을 위해(擬態 - 절뚝거리며 절뚝자를 유도하여 새끼를 보호하려는 행동)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태는 자칫하면 어머니가 잡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생존 전략이지만 이것만이 어머니의 최후선택 인 것입니다.  
 포천천에는 지금 많은 수의 꼬마물떼새가 포란 중이거나 일부는 부화를 해서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날이 화창해 지면서 포천천 산책로에는 많은 시민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도중

에 무심코 자갈밭이나 모래밭에서 꼬마물떼새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경계하고 주변에 알아서 새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도 안전하게 번식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밟을 수도 있는 하천모래밭 출입은 자제하고 만일 그들의 모습을 발견 했을때는 조심해서 지리를 피해주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천신문 조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 (주)꽃샘종합식품 제2공장 준공식

### 우크라이나 유센코 대통령 방문기념비 제막식

- 일시 : 2007년 5월 12일(토) 10시 20분
- 장소 : (주)꽃샘종합식품 제2공장
- ☎ 031-541-9921~4, 080-541-9920
- 주요참석자 : 관내 기관장, 관련단체, 협력업체, 관내주민대표, 자매결연 마을대표단, 친목친지의 다수